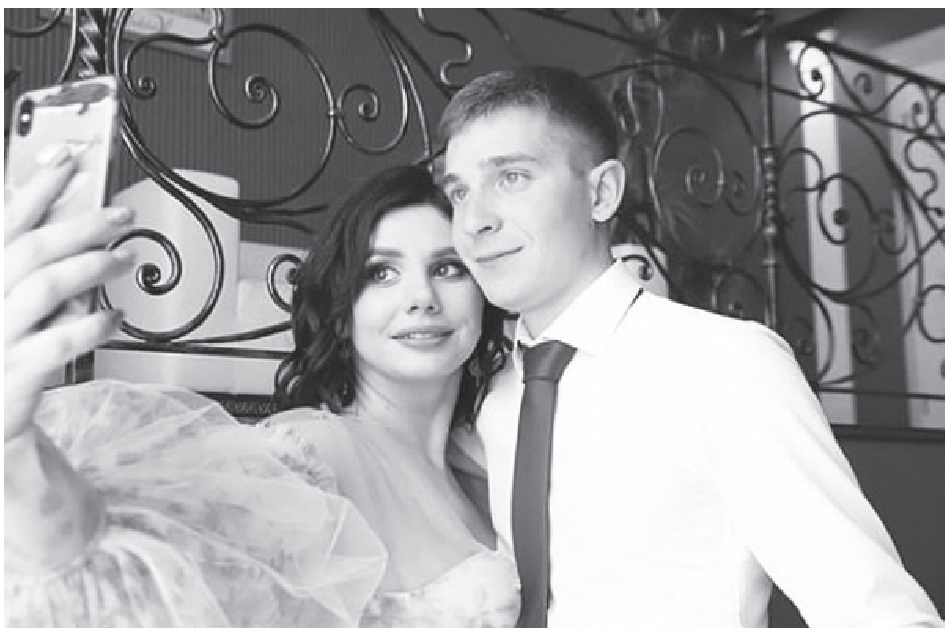
"우리 정말 사랑해요" 7살 때 입양한 아들과 결혼한 30대 여성



▲ 7살 때 자신을 입양한 어머니와 결혼한 러시아 남성(오른쪽). 13년 전 입양한 아들과 결혼한 여성(왼쪽)

▲ 왼쪽은 입양 당시의 샤비린과 어머니 마리나, 오른쪽은 현재 모습

러시아의 30대 여성이 입양한 아들과 결혼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임신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 사는 마리나 발마세바(35)는 지난 5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입양한 아들인 블라드미르 샤비린(20)과 다정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개 연애를 선언했다.

마리나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 함께 샤비린을 입양해 키웠다. 당시 마리나의 나이는 22세, 입양한 아들의 나이는 7세였다. 마리나는 어린 아들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봤고, 입양된 샤비린은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며 10여 년을 보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부모와 자녀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매우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리나는 최근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샤비린과 혼인 신고를 마쳤다. 당시 나는 머리도 빗지 않은 상태로 혼인 신고 사무소를 찾았는데, 샤비린이 깜짝 선물로 반지를 준비해 기분이 매우 좋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이어 "혼인신고가 끝난 뒤 우리는 웨딩 파티를 즐겼고, 몇몇 하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나는 현재 임신 상태이며, 조만간 큰 도시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남편에게 입양한 아들과의 결혼 소식을 알리진 않았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우리의 선택을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행복하고, 당신도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법적인 부부가 됨에 따라, 마리나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들이자 자신의 형제였던 다섯 아이를 함께 양육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가운데, 네티즌들은 "본인 손으로 키운 아이와 이성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혼인신고를 마치고 포옹하는 입양 아들과 어머니

중국이 '곰돌이 푸 가지고 노는 개' 사진에 격분한 이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반려견 사진 한 장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영국 BBC가 15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린 사진은 반려견 '머서'가 평소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인형에 둘러싸인 채 카메라를 올려다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반려견의 '애착인형'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곰돌이 푸'라는 사실이었다.

곰돌이 푸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풍자하는데 주로 이용돼 왔다. 2013년에는 시진핑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던 2013년 당시에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과 '곰돌이 푸' 속 캐릭터인 푸와 티거가 걷는 모습이 매우 닮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린 반려견의 사진이 중국의 지도자를 장난감처럼 여기는 미국의 태도를 담고 있다며 격분하고 있다.

과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간과한 채, 그저 사랑스러운 반려견의 일상을 공개했을 뿐인지에 대해 BBC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다.

BBC는 "사진 속 개는 미국과 폼페이오 장관을 의미하는데, 중국어로 '개'는 공격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사람이나 국가를 의미한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진을 올렸을 리 없다고 추측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 여론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을 '악마','거짓말의 왕'이라고 공격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사실 중국 SNS인 웨이보에서는 현재까지도 곰돌이 푸에 대한 검색이 쉽지 않다. BBC는 "중국 당국이 공산당 지도자를 조롱할 수 있는 비방적인 말이나 별칭 등을 적극적으로 검열하는 만큼, 중국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폼페이오 장관은 알고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푸 게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머서(폼페이오 반려견)는 30여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머서의 선택이 그것(푸 인형)이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핸슨&컴퍼니 변호사 사무실

한국어 법률 상담 403-537-8861

"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

변 호 사 | 법 무 사

Gary E Hansen
캐나다 최고의 이민변호사

Ben Plumer
소송 / 개인상해 / 이혼 전문 변호사

에릭 김

• 부동산 • 여권 및 영주권사진
• 개인상해 • 공증
• 위임장 • 유언장 & 상속
• 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미국이민 · 캐나다이민 · 회사법 · 공증 · 부동산 · 유언장 & 상속 · 이혼 · 위임장 · 개인상해 · 소송

HANSEN & COMPANY

558 – 9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S1 www.hansen-company.com / Tel. 403-261-6890 / Fax. 403-263-1632